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최 규 일*

목 차

- I. 머리말
 - II. {것}의 사용
 - II-1. {것}의 사용 빈도 - 초등 교과서
 - II-2. 글 장르별 사용 조사
 - II-3. {것}의 사용 실태 - 중등 교과서, 기타
 - II-4. {것}의 변이형/변이음 사용
 - II-5. 외국어 번역시 {것}의 사용
 - II-5-1. 한문 번역의 경우
 - II-5-2. 영문 번역의 경우
 - III. {것}의 여러가지 의미 기능
 - III-1. {것}의 의미 기능(1) - 통사상의 기능
 - III-2. {것}의 의미 기능(2) - 실사의 확장 의미
 - IV. 맺음말
- <부록>: <학년별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조사표>

I. 머리말

현대국어의 언어 생활에서 은연중 고유단어 {것}의 사용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그것이 널리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것}에 관해 한번 관심을 갖고 천착해 봄도 뜻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최규일(1985, 1989)이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는 선행 연구의 연장선에서 주로 초등 국어교과서와 중등 국어·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것}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을 살피기로 한다. 즉, {것}이 국민학교에서 학년 마다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학 장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서는 초등 국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어교과에 해당하는 읽기 교과서 1학기용의 본문에 나오는 {것}의 용례만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임.), 아울러 {것}의 형태가 바뀌어 쓰이는 변이형/변이음 사용과 외국어를 번역할 때 나타나는 {것}의 사용도 함께 살핀다. 그리고 통사·발화 기능면에서 {것}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 기능이 있는가를 추가해서 살핀다. 그러면서 고유단어 {것}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본다.

Ⅱ. {것}의 사용

Ⅱ-1. {것}의 사용 빈도 - 초등 교과서

언어는 그것이 단어이건 문장이건 또는 글이나 담화이건 간에 형식과 의미의 양면을 갖고 있다. 이는 언어가 일정한 형식의 구조, 즉 음운·통사·의미 구조를 갖는 동시에 의미 전달의 도구로 사용됨을 뜻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체계나 구조가 주의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대상(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심을 표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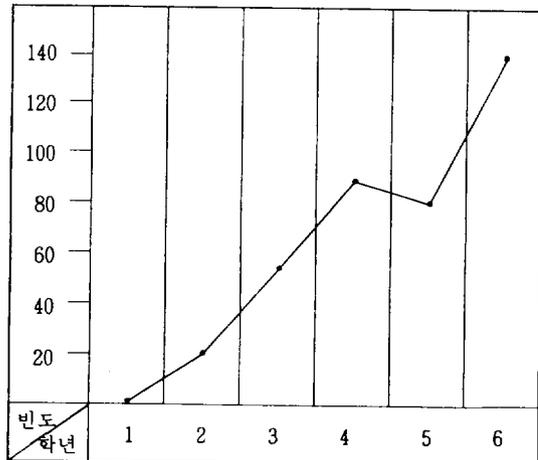
그리고 언어 사용의 인지적 과정은 무의식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심리 과정의 의식적인 사용이다. 언어의 올바른 표현·이해 기능의 신장(伸張)은 바로 이같은 무의식적이면서도 의식적인 언어 사용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부에서 펴낸 교과 지도서나 아동들의 학습 참고서에 {것}의 의미가 여러가지로 쓰이는 데도 자세한 지도 방법이나 해설이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똑같은 글자, 의존명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에 넣어 막연히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의존명사 {것}의 사용 빈도는 어떠한가? 학년 별로 문장을 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문장이란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단어의 집합체이며 종결어미로 끝난다는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표 1〉 {것}의 사용 빈도와 문장 수

학 년	1	2	3	4	5	6
빈 도	2	17	53	88	79	141

〈표 2〉



위 <표 1>과 <표 2>를 살펴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익혀야 할 어휘의 수를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5학년 교재에서의 {것}이 사용된 문장도 4학년보다 좀더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6학년 교재에서의 급격한 증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에 제시한 4학년, 5학년, 6학년 읽기 교과서의 구성과 페이지를 보면 그런 당위성은 농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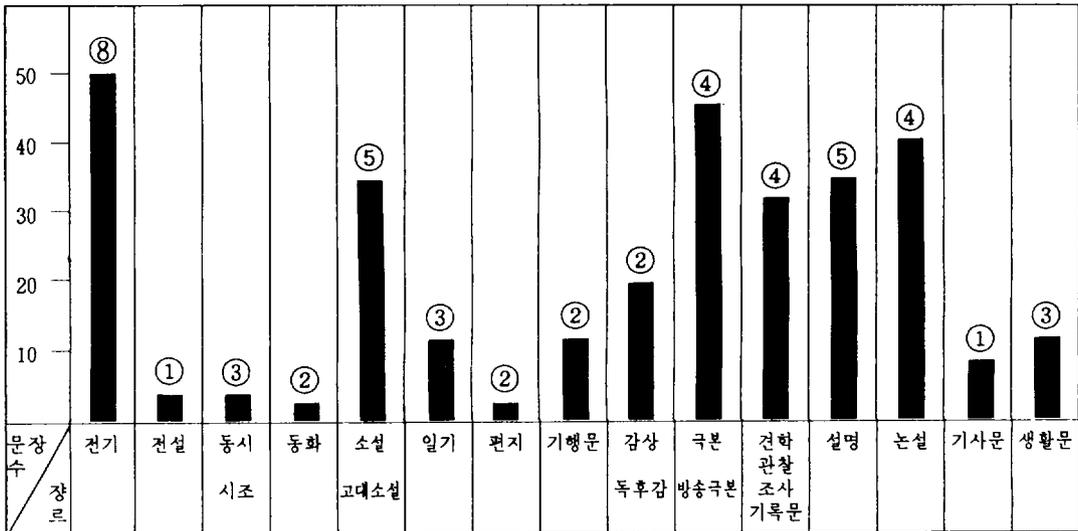
<표 3> 읽기의 단원수와 면수

4 학년	17개 단원	160 면
5 학년	17개 단원	160 면
6 학년	17개 단원	176 면

II-2. 글 장르별 사용 조사

여기서는 글 장르의 성격이 뚜렷한 국민학교 4·5·6학년의 읽기 교과서 51개 단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존명사 {것}이 어떤 글 장르에 많이 쓰이는 지를 알아본다.

<표 4> 장르별 {것}의 문장 사용 수



- — 문장수
- ○ 안의 숫자는 단원수

위의 <표 4>에서 단원수와 사용수를 같이 염두에 두어 견주면, {것}의 쓰임이 동시, 동화, 일기, 편지에는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극본과 설명문, 논설문에는 많이 나타나고, 전기문에도 많

이 쓰이고 있다. 즉, 운문일수록 적게 쓰이고 산문일수록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것}이 쓰인 문장은 6학년의 <17. 달혀진 문>이라는 제목의 극본인 경우, 1) 온갖 것, 2) 필요한 것, 3) 확실한 것 등으로 <달혀진 문> 속에 들어있는 불확실한 물체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다.

전기문에도 그 전기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해설하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쓰임새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논설문과 설명문에는 “것+이다”형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것 같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 종결어미로, 5학년 <9. 우리 선생님>이란 방송 극본 단원에서 {것}의 사용 문장 수가 많았다.

II-3. {것}의 사용 실태 - 중등 교과서·기타

국어연구소 편(1988)에서 조사한 중학교 국어·국사 교과서에 쓰인 어휘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중학교 국어·국사 교과서에 쓰인 어휘 빈도수

과 목 순위	〈국 어〉		〈국 사〉	
	어 휘	빈 도 수	어 휘	빈 도 수
1	있다	3359	하다(爲)	656
2	하다	3334	있다	594
3	것	2575	우리	564
4	보다(동사)	1904	이(대명사, 관형사)	510
5	그(관형사)	1566	되다	408
6	되다	1401	민족	367
7	이(관형사)	1265	나라	365
8	사람	1145	등(等)	356
9	우리	1067	운동	333
10	수(의존명사)	1064	때(時)	328
11	없다	843	문화	273
12	않다	797	것	272
13	나(我)	732	그(관형사)	270
14	말(言)	771	위하다	265
15	글	757	사회	260

국어 연구소 편(1988)의 어휘 조사 대상은 중학국어(6권), 국사(상·하권)에서 국어는 교과서의 전 어휘를 뽑았고, 국사는 본문, 학습개요, 학습정리 등을 대상으로 뽑은, 총 국어 어휘수 1576개와 국사 어휘수 7427개에 대한 어휘 빈도순을 나타낸 것이다.

이밖에 {것}의 사용 실태를 1956년 문교부에서 펴낸 <우리말 말수 사용의 갖기 조사>와 한글학회(1988)편에 따르면, 문교부(1956) 편에서는 {것}의 사용 빈도순위가 11번째이며, 한글학회(1981) 편에서는 14번째이다. 임지룡(1991)과 김종택(1992)에는 1. 보다→ 2. 하다→ 3. 것으로 {것}이 3순위로 나와 있다. 그리고 심재기(1990), <한국인의 어휘실력>이란 글에는, 우리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순서대로 훑어보면, 1. 것, 2. 있다, 3. 하다, 4. 않다, 5. 없다, 6. 사람, 7. 나, 8. 되다, 9. 그(관형사), 10. 아니다, 11. 보다, 12. 생각, 13. 같다, 14. 가다, 15. 오다, 16. 말하다, 17. 그(대명사), 18. 알다, 19. 말(言), 20. 우리 순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한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의 일상 어휘수 사용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3800단어, 영국은 1만 단어, 프랑스는 3만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이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어휘력 구사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 조사의 통계는 조사자의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사용실태 조사를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말 어휘 가운데 {것}이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임에는 틀림없다.

II-4. {것}의 변이형 / 변이음 사용

오늘날 어린이말(유아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1) “내꺼, 니꺼(네꺼)”라든지, (2) “그거, 저거”로, (3) “그런 걸 먹어”, (4) “저런 게 있냐”, (5) “죽을 꺼야”, (6) “개도 갈꺼지만 나도 갈꺼” (7) “또 올꺼” 따위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표시한 부분의 말들을 {것}의 변이형/변이음으로 처리하여 그 사용을 살피고자 한다.

1. -거(=것)

- (1) 1. 이것도 어떤 인연이라는 거겠지.
2. 그네를 타면서 어릴 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3. 흥,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게>
4. 어떻게 된 거냐, 그 친구는? <거=게>
5. 아름다운 것은 슬픈 거야. <거=것>

(1) 1, 2는 <것> 다음에 바로 자음이 올 수 없으므로(연접될 수 없으므로) <것>이 <거>로 변음된 게 아닌가 보아진다. 그리고 3, 4, 5의 <거>는 <게>로 통한다. 바로 뒤에 모음이 연접될 때 2의 경우는 <거>가 쓰인다고 할 수 있다. (1) 5의 <거>는 앞의 <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게>로 바뀐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것>이 대체형/교체형이지만 음소상으로는 변이음이라 할 수 있다.

6. 이거사(이것아) (아랫사람을 낮추어 이룰 때)

7. 거(그것) 참 훌륭하다.
8. 거 보오, 거 보게.

여기 6, 7, 8의 <거>는 文頭에 쓰이어 감탄사로 <그것>의 뜻으로 쓰인 말이다.

2. -게 (=것이)

- (2) 1.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장점이다. <게=것이>
2.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네.
3. 애교가 없는 게 좋지.
4. 재미난 얘기를 들려줘서 여간 고마운 게 아닐세.

(2)의 <게>는 모두 <것이>로 대체된다. 그런데 (2)는 통사 구조상 [부정+게+긍정]으로 연결되어 진다.

3. -건 (=것은)

- (3) 1. 소수의 의견에 치우치면 남는 건 절망뿐이다.
2. 땅 밑에 굴을 파고 꿈처럼 자고 있는 건 아니니까.
3.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4. 이건 또 어찌된 일인가.
5. 그런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3)의 경우 <-건>은 모두 <것은>의 준말 형태이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1, 2, 3의 <건>은 어미, 또는 토로 다루어 붙여 쓴 것이 아니라 의존명사 <것>의 준말로 처리하여 띄어쓰는 게 옳다. 그러나 4, 5의 <-건>은 앞말에 붙는 토로 처리하여 붙여 쓴다.

<-것>의 변이형/변이음은 준말 형식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아마도 화용상 말의 간편함, 말의 절약에서 생긴 언어 경제 현상이 아닌가 보아진다. 그리고 특히 유의할 것은 <것>의 변이형/변이음 다음에는 조사가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조사 대신에 어미가 붙는(연결되는) 셈이다.

- * 1. 내가 시중을 든 것도 아니니까.
- 2. 그건 어떻게 된 거냐.

4. -걸 (=것을)

- (4) 1. 하룻밤 지낸 사람이 승지 친구라는 걸 알고...
2. ...하는 데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걸까.
3.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풀어줄 수 있는 쪽과 그걸 당하는 인간들.
4. 왜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하니.

(4)의 <걸>은 모두 <것을>의 준말 형태이다.

5. -겁 (=것입)

- (5) 1. 문제가 없을 겁니다.

2. 그건 이겁니다.

(5)의 <겁>도 <것입>의 준말 형태로 변형이다. 준말과 본디말의 사용에서 준말형은 대체로 口語體에서, 본디말형은 文語體에서 흔히 사용된다.

(6) 농사에 필요한 節候라는 게 태양력에 근거했다는 걸 설마 이제야 알게된 건 아닐테고 절 후에 구애됨이 없이……

(6)의 <계>는 <것이>, <걸>은 <것을>, <건>은 <것은>의 축약형(준말형)인데, 표현상 구어체에 서는 간편하게 즐겨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표현상 語感은 같지 않아 보인다.

6. -꺼/ -께/ -르께/ -르꺼

- (6) 1. 당신은 모르실꺼야.
2. 그래, 내일 꼭 올께./올꺼야.
3. 내가 줄께 받아라.

(6)의 2 <올께/올꺼야>는 <-르 것이니>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3의 <줄께>는 <줄 것이니>의 준말 형태로서 <-르 터이니>로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연결어미로 간주된다. 그래서 <-르께>는 <-르 것이니>의 隨意的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때에 따라 “오빠껏, 언니껏, 동생껏, 내껏” 등으로 말하면서, ‘자기껏’은 <자기의 것>이란 뜻이 아니라 <오빠, 언니, 동생> 다음에 <껏>을 두루 쓰고 있는데, 이는 어린 이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니꺼, 내꺼” 따위는 비표준어로 일종의 구어이며, <너의 것>, <나의 것>은 문어로 볼 수 있다.

준말의 어형들은 형태음소론적으로 볼 때 <것>의 어미로 轉化된 경우이다. <것>이 원래는 의존명사이나 통사론 관점에서는 어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며, 관용구적 어미의 범주에 소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 이 경우 <것>이 의존명사로서의 외형적 통합관계와 그 기능을 띠고 있지만, 인접 형식과 완전히 융합되어버린 것도 있다. 관형사 뒤에서는 <것>이 경음화 된다.

- (7) 1. 내일은 비가 올꺼야. cf 올 것이야.
2. 벌써 갔는걸요. cf 갔는 것올요.
3. 그 사람도 갈것 같다. cf 갈것과 같다.

(7)의 <것>은 주로 후행 형식과 드물게 양자와 융합되어져서 의존명사로서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한 채 어간에 接尾되어서 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것>은 의존명사의 속성을 잃고 어미로 전환된 것이다.〔고영근(1970)〕

{것}의 변이음/변이형 사용은 다른 자립명사나 독자적 단어보다 훨씬 자유롭고 다채롭다는 점이다. 이 점이 {것}을 많이 사용하는 음운상의 {구어상의} 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II-5. 외국어 번역할 때 {것}의 사용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것}이 쓰이는 경우를 한문 번역과 영문 번역의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II-5-1. 漢文 번역의 경우

1. 道者, 文之根本, 文者, 道之枝葉 <者=것>

① 道라고 하는 것은 文의 근본이요, 文이라고 하는 것은 道의 지엽이다.

② 道는 文의 근본이요, 文은 道의 지엽이다.

2. 君子務知大者遠者, 小人務知小者近者 <者=것, 일>

① 군자는 큰 것과 먼 것을 알려고 힘쓰며, 소인은 작은 것과 가까운 코알의 것을 알려고 힘 쓴다.

② 군자는 큰 일과 먼 일을 알려고 힘쓰며, 소인은 작은 일과 가까운 일을 알려고 힘쓴다.

위의 번역시 ①과 ②는 둘 다 무방하다. 그러나 ②보다는 ①의 번역이 강조된 뜻을 지닌다고 하겠다.

3. 速去! 不者, 且見辱 <者=-것>

빨리 가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욕을 당하리라.

者가 小句文의 뒤에 쓰여 假定句文일 경우는 <-것>으로 번역되어진다.

4.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者=사람>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게 되고, 권력을 쓰는 사람은 남한테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

여기 者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1, 2, 3의 <者>가 <것>으로 번역되는 것과 다르다.

5. 所求不遂, 所知輒阻 <所=것>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던 것도 문득 막힌다.

6. 無所往而不自得 <無所=-것>

가서 저절로 깨닫지 못한 것은 없다.

“無所-不-”의 형식으로 이중 부정구문에는 긍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句法으로 쓰인다.

7. 君子之愛人也, 以德 <之=것>

군자가 사람을 ① 사랑하는 것은, ② 사랑함은 德으로써 한다.

8. 孤之有孔明, 猶魚之有水也 <之=것>

내가 공명을 가진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같다.

之가 주어와 설명어 사이에서 연결관계사로 쓰일 경우, <것>으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7, 8에서 之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之자를 사용하여 앞부분을 詞組로 바꾼 다음 그것을 설명어로 만듦으로써 보다 강조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9. 人類人所以，萬物之靈者，尚智而不尚力也. <以=것>

인류가 만물의 영장인 ① 것은, ② 까닭은 지혜를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지 않은 때문이다.

以자가 所자와 결합하여 所以라는 속어로 구문에 쓰인 경우에는 “-하는 것/까닭”으로 번역한다.

10. ㄱ. 何以教之? 有以教之(無所以教之言). <有以, 無所=것> <所, 以=것>

무엇으로써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것이 없다.

ㄴ. 何以爲家, 無以爲家(無所以爲家之資) <無以=것>

무엇으로써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을 지을 것이 없다.

以는 無, 有와 결합하여 無以, 有以로 쓰일 경우는 <-것>으로 번역한다.

11. ㄱ. 飢卽思食, 渴卽思飲 <卽=것>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생각하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음식)을 생각한다.

ㄴ. 求卽得之, 不求卽弗得也 <卽=것>

① 구할 것 같으면 얻고,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얻지 못한다.

② 구한다면 얻고, 구하지 않는다면 얻지 못한다.

卽자가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와 시간에 무관한 假定性을 내포하여 <-것>으로 번역하는 수가 있다.

12. ㄱ. 食小事煩: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번거롭다.

ㄴ. 罪莫大於不孝 ① 불효보다 더 큰 죄가 없다.

② 불효보다 큰 것(막대한 죄)이 없다.

ㄷ. 苦不修德…… ① 만약 덕이란 것을 닦지 않는다면……

② 만약 덕을 닦지 않는다면……

12에서 세 문장은 어느 특정한 글자가 <것>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문을 번역할 때 그냥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①과 ②처럼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II-5-2. 영문 번역의 경우

1. All of them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2. It is wront to tell a lie. (=to tell a lie is wrong.)

3. It is difficult for me to master the foreign language in a few weeks.

It~for~to 구문이 의미상 주어물 취할 때 <것>으로 번역하는데, 이 점은 한국어 문장에서 <것>이 형식상의 주어 구실을 하는 경우와 비슷한 관계에 있어 보인다.

4. It is true that he isn't dead.

5. It is with life as with a voyage.
6. It will be something before he gets well.
7. Nothing is so important as friendship.
8. He has much experience, to say nothing of leaning.
9. His being a foreigner has complicated the matter.
10.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is quite another.
11.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12. a. Our love teacher told us a story, which was very interesting.

관계대명사 which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대명사로 분해되어 <그리고 그것은>으로 번역된다.

- b. We were over taken by night on the way and what was worse, it began to rain.
13. a. I had like a pond of apples which ones. The Red One(Ones). <ones=것>
- b. What is the best thing to put into a pie. <Thing=것>

예문 1~12까지는 표시한 부분이 <-것>으로 번역되고, 13에서는 어느 특정 단어가 <것>으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문이나 영문의 외국어를 번역할 때 대체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번역 차용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할 때 생기는 표현 구문상의 차이로 인한 번역투의 한 樣式이다. 외국어를 번역할 때 {것}이 많이 쓰임은 그 외국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어휘를 잘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대신하여 {것}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본다. 한 가지 사물을 표현하는 어휘가 하나 뿐인 것[단조로움] 보다는 수십개의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언어 생활이 더 풍요롭고 다채롭다. 시대마다 지방마다 다양한 사고와 情感을 생생하게 표현하려면 각기 다른 풍부한 토속어를 알아야 한다. 즉, 풍부하고 다채로운 어휘 구사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 그런 자랑스런 우리 국어생활을 하려면, 외국어 번역시 {것}의 사용의 애용/다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찌보면 한 작가의 작품에서 그 작가가 사용한 어휘량이 얼마나 다양하며, 어떤 어휘들을 가장 즐겨 사용했는지는 풍부한 어휘 구사력의 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현대국어에서 현대 한국인들이 {것}을 다용/애용함은 어휘력의 부족/빈곤을 초래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것} 다용/애용은 再考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것}의 사용이나 용법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잘못된 {것}의 사용의 남용이다. 어떤 단어의 주석 끝에 {것}으로 끝맺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흔히 보게 된다.

조사 : 잘 살펴보는 것. → 잘 살펴봄.

불결 : 깨끗하지 못한 것. → 깨끗하지 못함./깨끗하지 아니함.

이 두 낱말이 마치 무슨 물건의 이름이나 되는 것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

펴보는 것(기제)이 아닌 바에야 <조사>를 어찌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편찮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 병으로 몸이 괴롭다.

어쩔 줄 모르다: ①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할 바를 모르는 것.

→ ②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할 바를 알지 못하다.

날말이나 어떤 문구의 끝은 서술형 종결어미로 끝났는데, 그 말의 주석은 ①처럼 <것>을 사용하여 의존명사로 끝났으니 맞지 않는다. 그 주석도 ②처럼 서술형어미로 끝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것}의 사용과 용법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현대국어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언중(言衆)들이 그 많은 국어 어휘 중에서 고유단어 {것}을 왜 많이 사용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그의 책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1953)에서 어떤 말의 의미는 단지 그 말의 용법(쓰임)에 따라 확인되며, 어떤 말의 의미는 그 용법이라고 했다. 곧, 한 단어의 의미는 그 언어에서 그 말[단어]의 사용[Use]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맥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의 의미는 각각 다르며, 그에 따라 하나의 단어는 무한한 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언어의 의미는 일종의 용법이다”는 그의 언어 의미의 용법설/사용설(The Meaning is Use theory)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장에서 {것}이 문맥·발화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여러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것}의 여러가지 의미 기능

언어의 의미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원래 <의미>란 감각할 수 없는 하나의 인식 작용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記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모든 단어는 그 단독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문맥이나 발화 속에서만 제대로의 의미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통사·의미·화용론의 기본 개념을 고려할 때, {것}이 자립명사와 같은 기본 의미(중심의미)를 얻은 떠올리기는 어려우므로 그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것}은 어디까지나 문맥/발화 속에서만이 그 뜻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것}의 의미기능을 편의상 1. {것}의 의미 - 통사·발화상의 기능(1), 2. {것}의 의미 - 실사의 확장의미(2)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것}의 여러가지 의미 기능은 {것}의 선·후행의 결합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것} 앞에 선행할 수 있는 형식은 관형화소 ① -(으)르, ② -(으)ㄴ, ③ -는, ④ -의, ⑤ 단어 생략형태(∅) 따위의 여러 어형들이 오며, {것} 뒤에 결합되는 후행 형식은 ① 거의 모든 조사류(특수조사 포함)와 ② 때로는 조사가 불기도 하며, ③ 어미 특히 <이다>의 모든 활용과, ④ 조사나 어미 생략 형태(∅)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것}의 결합 형식

先 行 形 式 + 先 行 素 +	것	+ 後 行 形 式
○○단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으)ㄴ ② -(으)ㄴ ③ -는 ④ -의 ⑤ -(ㄹ) 	것	+ (접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 ② 어미 (이다) ③ [∅]

이러한 여러가지 {것}의 앞뒤 결합 상태가 실제 문장에 쓰인 용례를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조사한 <부록> : <학년별 {것}에 나타난 문장 조사표>*를 보면서 {것}의 의미 기능을 보기로 한다. [* 이 조사표는 1991년 당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생인 장승련의 과제물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러면 고유단어 {것}이 문맥·발화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나타나는 여러가지 의미 기능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Ⅲ-1. {것}의 의미 기능(1) - 통사상의 기능

{것}의 통사·발화상의 의미는 {것}이 제홀로 갖는 독자적인 의미가 아닌, 그 앞 뒤에 어떤 말과 결합되었을 때 통사·발화상 갖는 기능이다. {것}은 앞뒤에 어떤 형식의 말들이 오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것}이 문맥이나 발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의미 기능을 말한다. 그래서 {것}의 앞뒤에 연결되는 선행형식 또는 선행소나 후행형식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통사·화용론 견지에서 {것}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서술·설명하는 기능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하여 그 정의를 말하거나 서술·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가 {것}이 갖는 의미 기능의 하나이다.

- (1) 1.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 거야(것이야).
2. 오늘 밤에는 좋은 꿈을 꿀 것 같다.
3. 양보하면 우리들 사이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1)에서 <-거야>, <것 같다.>, <것입니다.> 따위는 말하는 자기의 심정이나 사실을 담담하게 서술·설명하는 문장에 쓰이고 있다.

4. 충고해 : 평생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

4의 경우는 흔히 단어의 뜻을 풀이할 때 그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문장 끝에 {것}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그 단어의 主概念을 풀어서 말하는 설명 방식이다.

2. 강조·확인하는 기능

- (2) 1. 이 말에 호랑이는 등잔만한 두 눈에 주르르 눈물을 { ① 흘렸다.
② 흘리는 것이었다.
2. 사랑 뒤에 {① 휴식보다 ② 휴식하는 것보다} 사랑 전에 {① 휴식이 ② 휴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의 1이나 2 모두 같은 일을 묘사한 것이지만 ②의 표현은 호랑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의 ②에서도 두 표현이 다 쓰이지만 ①보다 ②의 표현이 더 강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것}이 선행어 <휴식하는>을 더 강조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것}은 통사·발화 구조상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화하여 강한 표현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것>이 확인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3. 하겠다.

4.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무슨 걱정이오?

3의 <하겠다>에서 <-것>이 확인 기능을 하고, 4의 <것>은 흔히 <-겠->으로 쓰는 일이 있으나, 이는 미래시제의 <-겠->에 유추된 잘못된 표기이다. 화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다짐)한다. 이런 확인법을 직설확인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법은 상태를 확인·강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강조법으로도 볼 수 있다. (고영근(1933: 323))

3. 대용(代用)하는 기능

대용은 그 앞에 온 선행어나 선행 문장을 대신하여 쓰인 표현으로 앞말과 앞문장의 반복을 피하며 간편하게 해주는 구실을 한다.

- (3) 1. 네 시제는 내것보다 좋다. <시제 → 것>
2. 식물의 분류법은 다윈의 것을 따른다. <분류법 → 것>

<부록>에 제시한 {것}이 나타난 문장 <용례>의 의미 기능란에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 의미기능을 밝혀 놓았다. 대용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문장에는 그 구체적 의미를 밝혔고, 그외의 다른 기능을 갖는 것은 간단히 적어 두었는데, 이 대용의 기능은 문장에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3. 사람들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더 큰 행복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의 <것>은 관형사형 <-는>과 서술격조사를 취하고 있는데 <추구한다>에 비하여 화자의 주장이 한층 더 강조되어 있다. 이에 비해 4의 <것>이 쓰인 부분은 <감수함>으로 바꿀수 있어 명사형 내지 명사절 구성의 기능을 띠고 있다. 이처럼 {것}이 대용 이외의 기능을 표시할 적에는 관형

어와 조사와의 통합에서 어떤 제약을 보인다. (고영근 (1993 : 76))

4. 지시하는 기능

- (4) 1.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 것은 감정의 자유다.
- 2. 어른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러 이러하다.).

지시하는 기능은 앞의 대용의 기능과 서로 관련되지만 좀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야 한다. (4)의 1의 {것}은 선행어 <슬퍼서 우는>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앞 전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앞 전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슬퍼서 우는>을 지시하는 기능이다. 그에 비해 (4)의 2에 쓰인 {것}은 그 뒤의 내용을 미리 예시(豫示)해서 지시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3. 그것은 아마 진짜일 것이다.

3의 <그것>과 같은 형태는 <지시관형사+것>의 결합형인 “이것 → 요것, 그것 → 고것, 저것 → 조것” 따위 표현은 구어체에서만 주로 쓰인다.

5. 명령·요청을 끝맺게 하는 기능

양인석(1976)은 명령의 기능에는 청자 중심의 명령과 화자 중심의 명령이 있다고 하면서, {것}은 이 중 전자의 명령에 쓰인다고 하였다.

- (5-1) 1. 손대지 말 것 ← 손대지 말 것이다.
- 2. 열심히 공부할 것 ←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 (5-2) 1. 손대지 맏시다(마시오.)
- 2. 열심히 공부합시다.(공부하십시오.)

(5-1)에서 앞쪽(왼쪽)이 뒷쪽(오른쪽) 표현보다 강한 표현(명령)이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르것>의 형식이 (5-2)에서 서술문으로 표현했을 때는 극히 겸손한 명령·요청이 됨도 볼 수 있다. (5-1)의 표현은 청자 중심의 명령형인데, 여기서 <-르것>은 강하게 명령한다는 생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르것>이 쓰인 명령은 언제나 주어가 2인칭임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집에 돌아와서는 꼭 손을 씻을 것.) 만약 주어가 1인칭 또는, 3인칭인 경우는 <-르것>이 쓰이어도 명령이 되지 못한다.

- 보기 : 1. * 내가 가도록 (할 것) - * 내가 손을 씻을 것.
- 2. * 그가 가도록 (할 것) - * 그가 재떨이를 가져올 것.

그런데 {것}은 금지리를 나타내는 발화에 자주 사용되며, 필연성을 뜻하는 부사 “꼭, 반드시, 필히” 따위와 잘 결합한다. (박금자(1980))

3. 손 대지 말 것.

4. 귀가 후에 꼭/반드시/필히 손을 씻을 것.

그러나 요청을 뜻하는 부사 “좀, 제발, 부디” 따위와는 {것}의 결합이 어색하다.

5. ?손대지 말도록.

6. ?귀가 후에 좀/제발/부디 손을 씻도록 할 것.

6. 명사구(보문) 구성의 기능

관형사형 <-ㄴ, -ㄹ>과 의존명사(것, 바, 수 따위)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문을 <명사구(보문) 구성>이라 한다.

여기서도 <-는(은) 것>은 명사구(보문) 구성으로 명사적 기능을 수행케 하는 통사상의 기능이 있다. 이 경우의 {것}은 그 앞의 문장 전체를 명사화하는 문법 형태소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6) 1. “그것을 쓰자 갑자기, 흐렸던 제 눈이 아주 맑아지는 게(것이) 아니겠어요?”

2.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사구>와 <보문> 구성에 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남기심(1973)은 {것}을 보문소가 아닌 대명사적으로 쓰이는 보문 명사로 보고 있다.

3. 저것이 무엇이나.

4. 세월이 가는 것이 빠르다.

이 예문에 쓰인 <것>은 모두 사건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외적 실체에 대해 형식화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명철(1991)은 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관형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확실세계의 사건을 나타내며, <-ㄹ>과 결합하여 가능 세계의 사건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ㄴ> 사건+것 : 실제 세계, 확실 세계
<-ㄹ> 사건+것 : 가능 세계, 불확실 세계

안명철(1991)은 <것> 명사구와 <-고> 보문을 비교하면서, “{것} 명사구는 인식이 되는 대상이며, 화자가 참으로 알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반해 <-고> 보문은 사실성에 관련 없이 주어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또는, 전달하고 있는 내용의 표현이다.”라고 보았다. <것> 명사구와 <-고> 보문의 쓰임이 문법적인 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화용론적인 이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남기심이 {것}의 기능을 문법적 위치에서 본 것이라면, 안명철은 문법적 위치보다는 의미·화용론적 위치에서 검토한 셈이다.

(1) 1. (화자 A) 그 여자는 지독한 거짓말장이다.

2. (화자 B) A는 그 여자가 지독한 거짓말장인 것을 알고 있다.

3. (화자 C) A는 그 여자가 지독한 거짓말장이라고 믿고 있다.
4. (화자 D) A는 그 여자가 지독한 거짓말장이인 것을 말했다.
5. (화자 E) A는 그 여자는 지독한 거짓말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것} 명사구는 실제 세계나 가능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상 참인 사건(사실)의 표현이라는 점이고, <-고> 보문은 화자의 인식 태도에 관련없이 주어의 발화 내용이나, 인식 내용을 보이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안명철은 <보문소> 대신 <문법요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문법화된 것이 아니고 의존명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안명철은 {것} 명사구와 <-고> 보문으로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문장 종결형에 붙어서 명사절을 만드는 <-는 것>은 본래 <-고 하는 것>이 줄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형식은 뜻이 같다. 그러나 해석은 다를 수도 있다.

- (2) 1. 나는 우리 팀이 참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분하다.
2. 나는 우리 팀이 참패를 했다는 것이 분하다.
3. 나는 우리 팀이 참패를 한 것이 분하다.

여기서 1과 2는 같은 뜻이며 그 해석은 3과 같다.

4. 나는 우리 팀이 참패를 했다고 한 것이 분하다.

1의 문장을 4와 같이 고쳐 쓰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4는 3과 같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영근 (1993 : 377~378)).

7. {것}은 구어체보다 문어체의 발화 형태로서, 메모나 공고문 따위의 상황에 적합한(가능한) 문장 종결 형식에 잘 쓰인다. 이는 동사 어간에 <-르 것>의 형태를 결합하여 잘 쓴다. 이 때 <-르 것> 뒤에는 “명령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따위의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다(양인석 (1976)). 이 견해에 따르면, <-르 것> 뒤에는 “명령하다……”의 동사가 생략된 것이므로 <-르 것>이 쓰인 명령은 明示的 명령 履行文에서 이행동사가 생략되고 잔류한 불완전한 문이며, <-르 것>은 불완전문의 일부분일 뿐, 독자적인 명령 표현의 어미로 해석될 수 없다(박금자(1987)). 이 견해는 {것}은 의존(불완전)명사로, 주로 事·物의 이름 대신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그리고 <것> 명사절과 <-음> 명사절은 서로 엇바뀌어 쓰일 수 있는데 구어체(口語體)에서는 <것> 명사절이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8. {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것으로, 주어진 문장 안에서의 문법적 기능은 일반 명사와 같다. 이때 {것}은 구체적 사물명 대신 사용되어 실질명사와 같은 實辭의 뜻을 지닌다. {것}이 실질명사와 같은 實辭의 의미 — 확장 의미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다룬다.

- (8) 1. 네가 먹은 것이 무엇이나? <것=음식>
 2. 네 옷이 내 것보다 좋다. <것=옷>

이와는 달리 3·4의 {것}은 구체적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적 기능도 일반 명사와 다르다.

3. 그가 떠난 것이 사실인가? → 그가 떠났음이 사실인가?
 4.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모두가 안다.

3·4의 문에 쓰인 {것}은 1·2와는 달리 문법적 기능이 거의 문법 형태소와 같다.

3과 4의 문은 왼쪽을 오른쪽 글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것}은 그 기능이 문법 형태소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의 {것}은 그 앞의 문장 전체를 명사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하여 남기심은 {것 1}과 {것 2}로 나누어 {것}에는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

9. {것}의 서법 기능은 통사적 결합 유형에서 선행어가 동사나 형용사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9) 1. 동사+(으)ㄹ 것 → 명령 | : 위험한 곳에 가지 말 것. |
| 2. 동사+(으)ㄹ 것 → 후회, 의지 | : 그 음식을 먹지 말것을 괜히 먹었다. |
| 3. 동사+(으)ㄹ 것이다. → 추측, 짐작 | : 내일 비가 올 것이다. |
| 4. 형용사+(으)ㄹ 것 → 당위 | : 방을 깨끗이 할 것. |
| 5. 형용사+동사+(으)ㄹ 것 → 추측, 의지 | : |
| 6. 동사, 형용사+어야/아야+보조용언+(으)ㄹ 것이다 → 당위: | : |

(9)와 같이 {것} 뒤에 어미가 붙을 때는 樣相素(modality), 또는 서법적 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서법과 양태에 대해서는 고영근(1991), 양인석(1976) 참조)

III-2. {것}의 의미 기능(2) - 실사의 확장의미

고유 단어 {것}은 1. 물건(들것), 2. 일(할 것), 3. 사람(상것)의 고유의미를 지닌다. 즉, {것}은 事·物·人의 세 가지를 뜻한다. 이를 쉽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것} : <물건(들것)> - <일(할 것)> - <사람(상것)>

이 표시는 {것}의 多意性的의 質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것}의 다의성은 언어의 恣意性과 언어의 유연성(motivation)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것}의 다의성을 구성하는 의미의 질량은 위 표시와 같이 폭이 넓은 반면에, 그 한계는 그을 수 없을 만큼 임의적이다. 이는 언어의 의미적 구성과 관련된다. (김민수(1982: 51)) 그리하여 여기서는 {것}이 실질명사와 같은 실질적 의미(<물건, 일, 사람>) 등등의 다의성을 나타내는 고유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다룬다. 다시 말해서,

{것}의 실질적 고유 의미와 {것}이 문맥이나 발화상 확장되어 나타나는 확정적 의미를 다룬다. 이것은 {것}의 의미가 자립성을 갖는 경우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 {것}이 <물건, 일, 사람>의 세 가지 뜻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여러 의미들을, <부록>에 제시한 <{것}이 쓰인 문장 조사표>에 나온 의미들을 몇 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것}=사람, 사물, 사실, 물체, 일, 경우, 이유, 모습/모양, 의지, 때, 장소, 꽃, 기록, 공부, 씨름, 돈(업전), 경험, 부품, 거래, 말, 팔, 상황, 화제 내용 따위로 나타난다.

이처럼 {것}의 의미가 실질적 의미에서 확장적 의미로 쓰인 것들 [물건, 일, 사람, 동식물, 현상, 경우, 이유, 모습(모양)……]은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사물, 어휘화될 수 없는 사건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것}은 다른 명사와는 달리 그 스스로 고정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의 대응어로 쓰이거나, 어휘화되지 않은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그런 점에서 {것}은 대명사와 성질이 비슷한데 그 앞에 필수적으로 얹히는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 그 지시적 기능을 수행한다(남기심(1991)).

문맥이나 발화에서 {것}이 실질명사와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경우의 예를 들면 이러하다.

1. 권력을 남용하면 될 것도 안되는 일이 생긴다. <것=일>
2. 헛것에 홀렸다면 난파당하기 쉽상이다. “헛것이다!” <헛것=귀신>
* 제주에서는 <귀신>을 <귀것>이라 말한다.
3. 이년이 속것을 흘랑 벗고…… <것=옷>
* 여기 <속것>은 <속곳>(내의일종)을 말한다.
4. ㄱ. 이 잡것아, 넌 맨날 콩밭에서 두부 찾고 자빠졌나? <것=사람>
 ㄴ. 요것아, 급하다고 오동나무 아래서 춤 출래. <것=사람>
 ㄷ. 이것아, 어린것에 젖을 물리고…… <것=아이>
 ㄹ. 이리온, 요 귀여운 것아. <것=고양이>

이 경우 <것>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경멸하거나 얕잡아 말할 때 사용한다.

5. 들것을 갖고 오너라. <것=물건(기구)>

<들것>에 쓰인 <것>은 자립성이 꽤 강하게 보인다.

6. ㄱ. 날것과 생것을 통채로 먹다. <것=아이>
 ㄴ. 것 먹어라. (제주 말) <것=음식>
 ㄷ. 비린 것 먹지 마라. <것=생선>
7. 남자들에게 자꾸만 생각나는 것 세가지? <것=대상(물건), 예를 들면 술, 담배, 여자>
8. 우리 것을 버리고 서양 것을 취한 셈이다. <것=화제 내용>

이 경우 화제(말하는 내용)가 우리 고유 전통에 관한 것이면 <것>은 고유 전통이 될 것이요, 음악에 관한 것이면 음악을 뜻하게 된다. 즉, {것}은 화제/주제의 내용을 가리키게 된다.

요컨대, {것}은 문장이나 발화 형식으로 표현(구현)되는 사건 또는 일, 낱말로 구현될 수 있는 사람, 짐승, 생각, 맛, 경우, 모습(모양)…… 따위의 추상물 내지 구체물. 또는 그것들을 표현할 구체적인 낱말이 없는 사물일 수도 있고, 문장 안의 어느 문장 성분이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쓰인 문장이 주는 문맥적 상황에서 추론되는 의미일 수도 있다(남기심(1991)).

9. {것}의 중의성(重義性)

그런데 {것}의 의미 기능을 다루면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것}이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것}의 重義性/模糊性(Ambiguity)이다.

(1) 윤아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이상하다.

(1)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윤아가 피아노를 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이 아픈지) 윤아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뜻과 또, 다른 하나는 [윤아가 피아노를 치면서 내는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의 두 가지 뜻을 갖게 됨은 상위문의 서술 동사 <이상하다> 때문이라 한다면, 세번째 해석은 피아노를 치면 필연적으로 소리가 따르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상하다>라는 동사와 더불어 <피아노를 친다.> 라는 <것> 절의 서술부가 그러한 상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것}의 지시 기능이 문맥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맞추어진다(남기심 참조).

(2)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다.

(2)에 쓰인 {것}도 중의적이다. 하나는 [해는 동쪽에서 뜨는 물체다.]라는 뜻으로 <것>이 <해>의 분류사 노릇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뜻으로 <것>의 관형절 전체를 받는 경우이다. 두번째 뜻에는 정의적(定義的)인 의미("해라는 것은 동쪽에서 뜨는 법이다." 하는 것과 같은)가 결들어 있다. 그래서 {것}이 쓰인 문장을 살필 때 {것}의 중의성과 다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것}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거니와 {것} 자체는 스스로 아무런 어휘적 의미가 없지만 문장 밖의 사물을 지시할 수도 있고, 문장 안에 낱말, 구, 절을 반복 지시할 수도 있다. 또한 {것}은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 문맥적 상황에서 추론되는, 아직 어휘화되지 않은 사물·사건을 지칭한다. 그리고 {것}은 어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질적 의미도 갖는다.

IV. 맺음말

현대국어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언중들이 {것}을 많이 사용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것}의 사용과 그 의미 기능에 관해 살펴 보았다.

모든 어휘 의미는 문맥/발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다고는 하지만, 흔히 쓰이는 {것}의 통사·발화상의 의미 기능을 잘 구별하여 파악시켜 주었을 때, 이해가 용이하고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국민학교 교재 편찬에도 모든 어휘의 수는 단계적으로 적절히 늘려, 급격한 증가에서 오는 거부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은 자기의 주관적 정서를 표출하는 시, 편지, 일기, 희곡 같은 글보다는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즉, 운문보다 산문에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것}의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어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 그런 까닭에 {것}은 국어 어휘에서 기초어휘 중의 하나로 선정해야 한다.

이상에서 {것}의 의미기능이 다양하게 쓰이고, 그 의미가 서로 엇비슷하여 명확한 구별이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의 사용과 여러가지 의미 기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 어휘 중에서 {것}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과 이유를 몇가지 든다면,

첫째, Ⅱ, Ⅲ장에서 보았듯이 {것}의 의미 기능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그 중 특히 1. 강한 명령, 2. 지시, 3. 대용, 4. 강조·확인하는 기능과, 5. 명사구(보문)을 구성하며, 6. 한 문장 내에서 두번 이상 중복되어 여러번 쓰일 수도 있고, 문을 연결시키는 데 편리한 단어라는 점이다.

[예]: 보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저 돈 생각뿐이다.

즉, {것}이 문맥·발화 속에서 각기 다양한 의미 기능의 다양성(多樣性)을 갖는다.

둘째, {것}은 앞뒤의 여러 말들과 주위 환경에 따라 어떤 실질명사의 뜻을 지니는 實辭로 대체되는 경우,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다양하게 쓰인다. {것}이 실질적 의미인 고유유미에서 확장적 의미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단지, 이 경우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암시적일 따름이다. 결국 {것}은 실질적 뜻을 지닌 확장의미로 많은 다의성(多義性)을 갖는다.

셋째, 어떤 말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뜻을 지닌 단어이거나, 그 추상적인 단어 뜻을 實在化하여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 {것}이 그 추상적 단어와 결합하여 그 선행어의 뜻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면서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일면도 있다.

[예]: 생명은 [소중한, 귀중한, 고귀한, 아름다운] 것 → 소중한, 귀중한, 고귀한, 아름다운.

이는 추상적인 선행어의 불확실한 개념을 다소 구체적이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것}의 意味推移化에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과 具象的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두 경우가 있다. {것}의 양면성[1. 추상에서 구상으로, 2.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동하는]이 있다.

넷째, 문체적 차이에서 오는 문어(글자말)보다 구어(입말)에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것}의 본디말보다 준말형인 변이형/변이음으로 바뀌어 간편하게 쓰인다는 점이다. 변이음/변이형을 사용하거나, 문을 연결시키는 데 편리한 점과 명사구(보문)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지시하거나 대용하는 기능들은 글을 표현하는 데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이 된다. {것}은 이러

한 언어 사용의 간편함(언어의 경제성)의 일면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놓칠 수 없는 점은 외국어 번역시 번역물에서 외국말 번역투의 영향/樣式으로 인한 多用과 남용이 아닌가 한다.

여섯째, {것}을 많이 사용하는 원인 중 잠정적인 결론은(?) 언어에 내재하는 완전한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을, 완성보다는 미완성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인간 심리 작용이 아닌가 한다. 이는 어찌보면 완전한 것보다 불완전한 쪽을 멋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역심리 현상과 통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많은 어휘 중 독자적으로 완전한 뜻을 지닌 자립명사보다 불완전하지만 의존명사로서 여러가지 의미 기능과 다양성을 지닌 {것}을 애용(愛用)하는 게 아닌가 본다.

이러한 {것}의 다양성과 다의성, 그리고 때로는 간편함 때문에 언중들은 {것}을 애용/다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것}을 많이 사용함에서 오는 폐단(弊端)도 생각해야 하겠다. 거기에는 ① 단어를 풀이할 때 주석 끝에 {것}을 잘못 사용함과 외국어 번역시 그 남용에 주의해야 한다. ② 사물을 표현할 적에 단조로움보다는 다양한 어휘로 풍부한 어휘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것}의 다용보다 사고와 정감을 생생하고 다채롭게 나타낼 수 있는 풍부한 어휘 구사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것}의 다용/애용으로 인한 어휘력의 빈곤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것}의 여러가지 의미 기능 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필요한 것인지, 당신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는지 찾아야겠다.

참 고 문 헌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 어학연구 1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 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
 고영근(1991), "서법과 양태의 상관 관계", 문법(1), 태학사, pp. 323~395.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탐출판사.
 국어연구소 편(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국어·국사), 국어연구소.
 국어 1-1,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9.
 국민학교 1학년~6학년 읽기 교과서.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민수(1982), 국어의미론, 일조각.
 김일웅(1982),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탐출판사.
 남기심(1973), 국어 원형 보문법 연구, 계명대학 출판부.
 남기심(1991), "불완전명사 '것'의 쓰임",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국어의 이해와 인식, 문교부 편(197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 박금자(1987), "국어의 명령 표현 연구", 관악어문연구 12집,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박병수(1974), "한국어 명사 보문구조의 분석", 문법연구 4집, 문법연구회.
- 서정수(1978), "'-르 것'에 관하여", 국어학 6호, 국어학회.
- 성기철(1976), "'-겠-과 -르 것'의 의미 비교", 김형규교수 정년퇴임논문집.
- 송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 유형에 대하여", 성심여대 논문집 10집.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1990), "한국인의 어휘 실력", 香粧, 태평양화학.
- 안명철(1991), "'것' 명사구와 '고' 보문에 대하여", 문법1, 태학사, pp. 375~394.
- 양인석(1976), "한국어 양상의 화용론(1)", 관악어문연구 6집, 서울대학 국어국문학과.
- 이남순(1981), "'겠'과 '르 것'", 관악어문연구 6집, 서울대학 국어국문학과.
- 이승녕(1975), "중세국어의 '것'의 연구", 진단학보 제39호, 진단학회.
-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170호, 한글학회.
- 임지룡(1991), "국어 기초 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학 사범대.
- 최규일(1985), "한국어 {것}의 의미기능과 용법", 제주대학교 논문집 20집, 제주대학교.
- 최규일(1989), "한국어 {것}의 의미 기능(2)",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한글학회 편(1981),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낱말 찾기 조사, 한글학회.
- Lee, Hong Bae(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Penguin Books.
- Lyons, John(1981), Language, Meaning & Context, Fontana Paperback.
- Yang, Dong Whee(1976),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1-2.

〈부록〉 : 〈학년별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조사표〉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1	1-1	10. 전화 (설명문)	74 : 9	걸어가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소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경우
2	"	11. 어떻게 해야 할까요?	81 : 7	"거북아, 저 산 위에 있는 나무까지 먼저 가는 쪽이 이기는 거야."	(서술)
1	2	1. 우리들은 2학년 (떠어질기)	12 : 3 ~4	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있으면,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	일, 공부, 규칙
2		3. 우리집 우리가족	25 : 6 ~7	조금 있으면 개나리꽃도 곱게 필 것입니다.	(서술)
3			25 : 8 ~9	4월이 되면, 우리 집 뜰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필 것입니다.	(서술)
4			25 : 10 ~11	그러면 우리 집은 아름답고 예쁜 꽃집이 될 것입니다.	(서술)
5		5. 자라는 우리	40 : 6	동생 나무가 생긴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사구) (서술)
6			40 : 8	'나도 튼튼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술)
7		6. 옛날 이야기	48 : 10 ~11	"재 말을 들으시면, 임금님의 병은 틀림없이 나오실 것입니다."	(서술)
8			48 : 13 ~14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스러운 일이니,..."	(지시)
9			48 : 17 ~18	"백성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금님의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서술)
10		8. 즐거운 소풍	61 : 8 ~9	예쁜 꽃들을 찾느라고 보물을 찾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
11		9. 마음의 선물	68 : 8	"생일 선물이라면 좋은 게 있어." (것이)	사물
12		12. 바다	89 : 9 ~11	"...우리 나라에 섬이 많은 것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란다."	이유
13		14. 보람있 는 생활	102 : 1 4~16	그 일은 아기뱃방울에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서술)
14		15. 주고 받 는 말	110 : 1 3~14	"과자를 사 보내자. 예쁜 인형도 팬찮을 것 같은데..."	(서술)
15			111 : 2 ~3	"그게 좋겠다. 편지마다 그림까지 그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서술)
16			112 : 3 ~4	"동호가 우리들의 그림 편지와 동화책을 받으면 아주 기뻐할 거야."	(서술)
17		17. 여름방학 을 앞두고	122 : 3 ~4	그래서 여름 방학을 하는 것입니다.	(강조)
1	3	2. 하루를 보내고	14 : 12 ~13	그 동안 만화책만 본 것이 부끄러웠다.	일

* 의미기능란에 ()속의 단어는 통사상의 기능이고, ()없는 단어는 실사의 확장 의미를 뜻한다.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2	3	2. 하루를 보내고	17 : 15 ~16	오늘 밤에는 좋은 꿈을 꿀 것 같다.	(서술)
3	18 : 5		내가 의사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환자가 되니까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	(서술)	
4		4. 이야기 자랑	35 : 6 ~7	"특별히 상으로 주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어서 꺾어라."	업전
5		5. 지세히 설명하기	41 : 2 ~4	밤에 자다가 멀어서 사람이 지나가도 벌떡 일어나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습, 경우
6		6. 훌륭한 어른	49 : 5 ~6	다가온 농부가 선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조)
7			50 : 1 ~2	"아니, 그까짓 것을 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단 말ियो?"	일
8			53 : 7 ~9	그런데 그것은 간단하게 차린 것이 아니라, 마치 잔칫상과 같았습니다.	상(床)
9			53 : 14 ~15	"대감께서 시장하실 것 같아 제가 조금 마련하였습니다."	(서술)
10		7. 아름다운 이야기	64 : 5 ~6	"엄마! 저 유리창에서 파란 게 들여다 보아요." (것이)	사물(물체)
11			65 : 4 ~5	"~어쩐지 병이 꼭 나올 것만 같아요.~"	(서술)
12			66 : 11 ~12	그리고 이제는 딸의 병의 틀림없이 나올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명사구) (보문)
13		8. 소품	74 : 6	"내 보물이 더 좋을 거야.~" (것이)	(서술)
14		9. 반가운 소식	79 : 3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	(서술)
15		10. 우리 아버지	91 : 2 ~6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넓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술)
16			91 : 10 ~12	하나는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나와 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명사구) (보문)
17		12. 재미있는 이야기	108 : 1 6~109 : 1	"~너는 허락도 없이 세상에 내려갔으니, 마땅히 이 나라에서 쫓겨나야 할 것이로다.~"	사람
18		13. 슬기로운 생각	116 : 6	"~사람이 과 놓았을 거야."	(서술)
19			117 : 1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서술)
20			122 : 6 ~7	"~아무래도 사람이 구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명사구) (보문)
21		14. 생각하는 어린이	126 : 4 ~6	우리는 입을 옷, 먹을 음식, 살 집을 모두 혼자 힘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술)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22	3	14. 생각하는 어린이	126: 8 ~9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강조)
23	126: 1 0~11		우리들은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사구)	
24	127: 8 ~9		우리가 모두 나에게 편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 경우	
25	128: 4 ~6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기의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	일, 경우	
26	128: 1 3~14		그러나 통명스럽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언짢게 될 것입니다.	(서술)	
27	128: 1 5~17		더구나 욕설이나 속된 말 같은 거친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을 몹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서술)	
28	129: 8 ~9		이렇게 하면, 우리들 사이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서술)	
29			15. 내가 겪은 일	136: 2 ~3	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 갖다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30	137: 1 3~14	'선호야, 너는 지금 네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야.'하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술)	
31	137: 1 6~138 : 1	또 누군가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서술)	
32	138: 9 ~139 : 2	"선호냐? 우리 선호가 쌓는 탑이 자꾸 놓아지는 것을 보니 꽤 기쁘구나."		모양	
33	139: 6 ~7	"~그래서 이렇게 돌을 내리고 있는 거야~"		(서술)	
34	140: 1 ~3	하늘의 별들이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술)	
35	141: 6 ~8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비웃는 것 같던 별들이 모두 방글방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술)	
36		16. 말의 세계	147: 2 ~4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말을 조리있게 잘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야."	(명사구)
37	147: 8 ~10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조리있게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을 뜻하거든."	(서술)	
38	147: 1 5~17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야 돼."	(서술)	
39	147: 1 7~148 : 1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야."	(서술)	
40	148: 3 ~5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주의깊게 생각하며 듣는 것도 필요하지."	일	
41			16. 말의 세계	148: 5 ~7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읽어 지식을 풍부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42	3	16. 말의 세계	149 : 2 ~3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부끄러울 것도 멸릴 것도 없지 않겠나?"	일
43			149 : 1 2~14	그리고 말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명사구) (보문)
44		17. 나의 관찰	152 : 1 4~16	무지개는 진한 빛을 내면서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았다.	(서술)
45			153 : 12	무지개는 왜 생기는 걸까?	(서술)
46			156 : 5 ~6	그리고 썩기의 바로 옆에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었다.	사물
47			156 : 8 ~9	~칼로 파 놓은 것 같은 줄무늬도 있다.	(서술)
48			157 : 3 ~4	"~썩기가 번데기로 변한 거야."	(서술)
49			157 : 6 ~7	내가 썩기를 자세히 살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험
50			157 : 1 2~13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물
51			158 : 2	어떻게 될 걸까?	(서술)
52			158 : 9 ~10	그러나 나는 그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내용, 공부
53			158 : 1 1~12	책을 읽어서 아는 것보다 직접 관찰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공부
1	4		1. 유관순 (전기)	12 : 7 ~8	"~내 나라를 사랑하여 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 무슨 잘못이요?~"
2		13 : 10 ~13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3·1운동을 일으킨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단결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사구) (보문)
3		2. 노래하는 마음(동시)	16 : 2 ~4	사랑스런 것은 모두 모아 책가방에 싸 주시고,	모든 물체
4		3. 자동차 공장을 찾아서 (견학기록문)	24 : 3 ~6	정문에 들어서자, 승용차, 버스, 트럭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모습
5			25 : 15 ~16	그 많은 부품을 전부 만든다는 것은 기술면에서나 시설면에서나 어렵다고 한다.	일
6			25 : 17 ~18	그렇기 때문에 차의 성능이나 모양 결정에 중요한 것들만 여기서 만들고,~	부품
7			26 : 18 ~19	완성된 엔진은 정밀한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검사에 합격된 것만 자동차에 쓰인다.	부품
8			29 : 4 ~6	정밀 검사를 마친 자동차는,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 야적장으로 보내진다.	부품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9	4		29: 8 ~30: 1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10			30: 2 ~4	한 대의 자동차가 비로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11		4. 개나리와 진달래 (감상문)	36: 14 ~16	노란빛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개나리이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봄 동산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 진달래이다.	꽃
12			37: 10 ~38: 2	노랗게 피어있는 개나리와 함께 살아오고, 분홍빛 진달래를 보며 꾸밈없는 마음씨를 키워 온 것이 우리 겨레이다.	겨레
13			39: 2 ~3	이 노래를 읊어 보면, 연분홍 진달래의 모습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 같다.	(서술)
14			39: 9	꽃은 언재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다.	(강조)
15			39: 9 ~10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재나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모든 물체 사물
16		5. 윤봉길 (전기)	42: 10 ~12	만세 소리는,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 마침내 윤봉길이 살고 있는 마을에까지 메아리친 것이다.	(강조)
17			44: 12 ~13	아들의 고집스런 성격을 잘 아는 어머니는, 학교에 나갈 것을 굳이 강요하지 않았다.	(명사구)
18			44: 16	그는 서당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되어, ~	공부
19			46: 9 ~10	~일하여 모은 돈을 저축하도록 권장한 것도 자립 정신을 기르기 위함에서였다.	일
20			48: 10 ~12	이 폭음이야말로 배달 겨레가 분노하는 소리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광복을 예고하는 소리였던 것이다.	(서술)
21			48: 13 ~14	윤봉길 의사는, 폭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침략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품속에~	모습
22			49: 11 ~12	~겨레의 가슴에 광복을 향한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것이다.	(서술)
23			6. 성묘 (일기)	53: 7 ~8	'이럴 줄 알았으면 야구장에나 같이 간다고 할 걸. ... (것을)
24		54: 1 ~2		인호와 약혹하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가 되었다.	일
25		55: 6 ~7		~할아버지를 생전에 한 번도 뵈지 못한 것이 매우 서운했다.	일
26		55: 18 ~19		'할아버지, 성묘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죄송해요.'	일
27		57: 7 ~9		~"한 때 성묘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좋은 풍습이지요."	일, 풍습
28		57: 11 ~12		오히려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다녀온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일, 경험

책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29	4	7. 흥부와 놀부(고대소설)	6:14 ~15	"형님,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모습
30			65:14	"너 이놈, 도둑질한 게 아니냐?" (것이)	(명사구) (보문)
31			67:2 ~3	~여러 가지 보물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박을 땀습니다.	일
32		8. 소품(생활문)	71:3 ~4	숲 속에서선 신선하고 상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술)
33			71:16 ~17	내가 돌을 하나 들어 났을 때,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사구)
34			71:19 ~72:2	그러나 큰 소리로 부르면 가재가 도망쳐 버릴 것 같아 참았습니다.	(서술)
35		9. 그네와 씨름(설명문)	79:2 ~4	그네는 '추천'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옛기록을 보면 '근의', '굴위', '그리', '근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있다.	기록
36			79:5 ~7	'근' 또는 '근'의 놀이라는 뜻으로 '그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서술)
37			79:15 ~16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네뛰기가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38			81:7 ~9	이것으로 보아, 씨름은 고구려 때나 그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명사구)
39			81:17 ~82:3	원씨름은 살바를 오른쪽 다리에 걸고 오른쪽 어깨를 마주 대고 하는 것이고, 오른 씨름은 살바를 왼쪽 다리에 걸고 고개와 어깨를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다.	(서술)
40			82:9 ~10	먼저 넘어지거나 손이나 무릎이 땅에 먼저 닿게 되면 지는 것이다.	(서술)
41		9. 그네와 씨름	82:11 ~13	씨름은 이렇게 걸어잡은 채 겨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배지기, 등지기, 다리걸기 등 여러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것이다.	(서술)
42			82:15	씨름판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기는 것을 '판막음 또는 '판막이'라고 한다.	씨름
43			83:4 ~6	이 씨름은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세계적인 운동 경기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서술)
44		10. 석수장이(극본)	88:13 ~14	과일을 열게 하고 익게 하는 것은 태양의 신령이 하는 일이다.	일
45			88:18 ~19	"태양의 신령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대로 되어라"	일
46			91:3 ~4	"구름의 신령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되어라"	사물
47			92:19 ~93:1	"구름과 폭우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사물
48			93:10 ~94:1	"이제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석수장이로구나 ~"	사람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49	4	10. 석수장이 (극 본)	94 : 3 ~4	"석수장이? 그 것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일
50			95 : 11 ~12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걸..." (것을)	일
51		11. 선생님 과 어머니 (생활문)	100 : 1 ~2	젊은 선생님이 이 벽촌에 오신 것은 오랜만의 일이라고 동네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우
52			100 : 5 ~6	특히, 풍금을 치시며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있노라 면, 마치~	(명사구) (보문)
53			101 : 1 1~12	한참만에 내가 온 것을 아신 어머니께서는~	일, 사실
54			103 : 1 0~11	어머니께서는 내는 것의 반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내기
55			103 : 1 4~15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모르고 지낸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일
56			104 : 3 ~4	오늘 결석했다고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서술)
57			12. 어린이 신문(기사문)	108 : 1 0~12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벅칩니다.
58		108 : 1 5~109 : 2		~줄기가 뻗고 귀여운 꽃봉오리를 맺어 예쁜 꽃이 필 것 입니다.	(서술)
59		110 : 4 ~5		이렇게 함께 생활하며 사귀 친구는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술)
60		110 : 6 ~8		그러나 친구들 가운데에는 좋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 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61		12. 어린이 신 문	110 : 1 1~13	좋은 친구란, 성실하며, 마음이 너그럽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아는 것이 많은 친구를 말합니다.	지식
62			110 : 1 7~3	그렇다고 결코 친구를 차별하여 사귀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
63			113 : 8 ~9	어린이들은, 신문울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 여쭙어 보고~	일
64		13. 사이좋은 친구(전기문)	116 : 1 2~15	옆집의 아이들이 그 쪽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기네 것이 라고 우기며 감을 따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 다.	감나무 (서술)
65			117 : 1 ~3	"아무리 담 너머로 가지가 넘어갔어도 감나무는 우리 것 이지."	감나무
66			117 : 1 0~11	"아무리 방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네 것이니까 네 팔이 지."	팔
67			117 : 1 4~16	"~저 담 넘어 떨어진 감나무 가지는 누구네 것이니 까?"	감나무
68			121 : 4	"음, 그야 너희 것이지."	감나무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69	4		123 : 1 2~13	자기들도 이다음에 권 대감처럼 어진 선비가 될 것을 다 짐하였다.	(명사구) (보문)
70		14. 벌의슬기 (관찰기록문)	126:2 ~3	철새는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것일까?	(서술)
71			126 : 4 ~5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는 봄이 온 것을 어떻게 알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일까?	(서술)
72			126 : 6 ~7	동물들이 하는 일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강조)
73			128 : 6 ~8	멀리까지 날아 본 경험이 없는 어린 벌들이기 때문에 집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서술)
74			130 : 6 ~8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먼 길을 돌아온 것은, 멀리 돌아오는 길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
75		15. 육이오 (논설문)	134 : 6 ~8	휴전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서술)
76			134 : 1 0~12	그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자.	지시
77			135 : 2 ~3	그 싸움들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일어난 것들이었다.	싸움
78			139 : 1 4~15	민족은 하나요, 겨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사구) (보문)
79		16. 편지 (편지글)	145 : 3 ~4	이번 여름 방학이 나에게서 농촌의 모습을 구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서술)
80		17. 사랑의 천사(전기문)	150 : 4 ~6	숲 저쪽에 이웃집 개가 여우 뒷에 치어서 발버둥치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서술)
81			152 : 2 ~5	~귀족집 딸로 나무랄 데 없이 자라가는 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삼았다.	일
82			152 : 6 ~8	여행을 하면서, 그녀는 가난과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83			152 : 9 ~11	~불행한 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이 자기에게 사명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조)
84			153 : 2 ~3	~병든 자를 돕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녀의 나이 스물네 살 때였다.	때
85			154 : 1 0~11	그녀는 혼자 꾸준히 병원과 위생에 관해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	내용부문
86			155 : 5 ~7	38명의 여자로 조직된 최초의 간호병부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달려간 것이다.	(강조)
87			154 : 2 ~3	귀족의 딸이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모습
88			154 : 8 ~9	'~언젠가는 하느님이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서술)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기능	
1	5	2. 계절의 문턱 (생활문)	17: 4	"여보, 벌써 봄이 온 것 같소."	(명사구) (보문)	
2			17: 16	"네, 저는 벌써 어머니하고 약속했는걸요."	(어미)	
3			17: 17 ~18: 1 1	"그럼 이걸 모녀의 작전에 내가 말려든거 아냐?"	(명사구) (보문)	
4		3. 우리말을 빛내는 길 (논설문)	23: 9 ~11	우리말에는 말소리의 길고 짧음이나, 말소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뜻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말	
5			24: 16 ~19	토박이말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표현하기 쉬울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 필요	
6			24: 19 ~25: 1 1	그러나 토박이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말, 사실	
7			25: 3 ~4	~될 수 있는 대로 한자어나 외래어를 삼가고 우리 토박이 말을 쓰는 것이 좋다.	(명사구) (보문)	
8			25: 5 ~7	~'뉴스'라는 말 대신에 '새 소식'으로 쓴다면, 알기도 쉽고 쓰기도 편할 것이다.	(서술)	
9			27: 13 ~15	이 속담은, 어려서 버릇이 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뜻을 나타낸 말이다.	일	
10			4. 주시경 (전기)	33: 9 ~11	~상호는, 하늘이 끝없이 높은 위에 있어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서 깨달았다.	(명사구) (보문)
11				35: 10 ~12	그것은, 그의 스승이 매번 한문을 먼저 읽은 다음, 그 뜻을 우리말로 풀이해 주시는 것 때문이었다.	일
12		35: 17 ~19		우리 말과 글에 대해서 연구할 뜻을 세운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때	
13		36: 15 ~17		독립 신문은 순 한글 신문이므로 독립 신문사에서 일하게 된 것은 선생의 국어 연구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명사구) (보문)	
14		37: 2 '4		~한글을 다듬고 지켜 나가는 것이 자주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다.	일	
15		38: 16 ~19		선생의 연구 업적은 남의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말과 글을 깊이 탐구한 결과 얻어진 것이었다.	연구 업적	
16		38: 19 ~39: 2 2		선생이 남긴 글과 책을 연구하려는 사람들과 단체가 많이 생긴 것을 보아도, ~	상황	
17		39: 6 ~8		우리는 선생의 업적과 발자취를 마음에 새겨,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사랑을 더욱 두텁게 다져야 할 것이다.	(강조)	
18		5. 김정말 이야기(동화)	48: 7 ~8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게 된 것도 모두 김정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	
19		6. 남극 세종 기지를 찾아 서(기행문)	53: 7 ~9	이제 우리도 이 남극 대륙의 연구, 개발에 그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술)	
20			55: 3 ~5	텔레비전, 전축, 탁구대 등이 놓여있어,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다.	(서술)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21	5	6. 세종기 지를 찾아서	57: 6 ~8	단 두 달 만에 기지를 지으면서, 이런 시설까지 마련한 것을 보면,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명사구) (보문)
22		7. 편지 (편지글)	65: 7 ~8	독도를 경비하는 일이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일
23		8. 할머니의 안경(동화)	70: 2 ~3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모셔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
24		9. 우리 선생님 (방송극본)	78: 12 ~13	"맞아, 여기에 오니까 아프던 머리가 다 낫는 것 같다."	(서술)
25			78: 17 ~79: 2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쉬 틈도 주셔야지, 거기다 숙제는 왜 그리 많은지..."	일
26			81: 14	"선생님께서 학교에 못 나오신 거?"	(명사구) (보문)
27			82: 11 ~12	"그래도 괜히 우리 탓인 것만 같아서 죄지은 것 같애."	(명사구) (보문)(서술)
28			85: 5 ~6	"저희가 너무 말씀을 부린 것 같아서요."	(서술)
29			86: 2 ~4	"~이렇게 아프고 보니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다.~"	(명사구) (보문)
30			86: 16 ~17	"그 동안 내가 너무 공부 소리만 한 것 같아서,~"	(서술)
31		9. 우리 선생님	87: 2 ~4	"좋은 극본도 많이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들 이야기면 더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	극본
32			87: 4 ~5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꾸미던 거야."	(서술)
33		11. 통신의 발달(설명문)	98: 17 ~99: 2	최초의 통신 방법은 아마 전해야 할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알리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서술)
34			99: 6 ~8	밤에는 불을 피워서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올려 알렸다. 이것이 봉화라는 것이다.	(강조)
35			100: 4 ~6	빨간색, 하얀색의 깃발을 사용하는 수기는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며, 오늘날의 교통신호는~	(명사구) (보문)
36			100: 1 3~14	지금 이용되고 있는 우체국은 이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서술)
37			102: 6 ~8	오늘날, 전송 사진을 볼 수 있고,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이 전파를 통해서이다.	(명사구) (보문)
38			103: 3 ~6	그리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모습을 우리는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서술)
39			103: 1 1~12	앞으로도 통신은 더욱 발달할 것이다.	(서술)
40		12. 일기 (일 기)	106: 1 1~12	한 달이 넘도록 가문 땅에 드디어 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서술)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41	5	12. 일기 (일 기)	108 : 4 ~5	일기 예보에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했지만, ~	날씨
42		12. 일기	107 : 1 1~13	두 분 모두 옷이 흠뻑 젖은 것으로 봐서 비를 맞으며 일을 하셨던 모양이다.	(명사구) (보문)
43			109 : 8 ~10	금실 같은 모양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자리를 바꾸며 점점 둥글게 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모양
44			109 : 1 1~13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일식을 보고 하늘개가 해를 집어 삼키려다가 너무 뜨거워 도로 뱉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명사구) (보문)
45			13. 신사임당 (전기문)	114 : 8 ~10	사임당은, 옳지 않은 일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이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46		115 : 1 ~3		그러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명사구) (보문)
47		116 : 4 ~5		"문 밖을 나와 본 일이 없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명사구) (보문)
48		117 : 7		이와 같이 그의 성품이 지극히 곧은 것은 모두 사임당의 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명사구) (보문)
49		117 : 1 5~16		그런데 그 치마는 남에게서 빌려 입은 것이었다.	치마
50		14. 효자리의 세 무덤 (지명견설)		122 : 1 5~17	그렇지만 효심이 지극한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51			127 : 2 ~3	이 말에 호랑이는 등잔만한 두 눈에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52			127 : 4 ~5	"호랑아! 내 죽는 날까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디 잘 지내거라."	강도
53			127 : 1 0~12	산을 오르내리느라 그의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입니다.	강도
54		15. 고지의 태극기(소설)	132 : 1 7~133 : 2	제30연대 제3대대가 지키고 있는 이 695고지를 탈취하고자 오늘 밤에도 중공군의 큰 야습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추측
55			137 : 4 ~6	참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뢰망을 터뜨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도
56			137 : 1 4~15	따스하고 끈끈한 것이 만져질 뿐이었다.	(명사구) (보문)
57		16.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144 : 9 ~10	누구나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서술)
58			145 : 8 ~11	봄은 분명 미시시피강가의 숲길과 보드라운 흙을 밟았겠지만, 나는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이 덮인 길을 걷는 것이다.	(강조)
59			145 : 1 1~12	뜸처럼 맨발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것이다.	일
60			145 : 1 6~18	이런 자유 분방한 봄이 벌이는 온갖 장난들, 그것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매우 기발한 것들이었다.	장난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61	5	16.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	146 : 4 ~6	몸에게 사과를 주면서까지 대신 페인트칠을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아무도 어리석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서술)
62			146 : 7 ~8	또, 몸의 그 알미운 피도 나쁘다고 나무라지는 못할 것이다.	피
63			146 : 1 2~13	개구쟁이 몸, 하지만 몸 옆에는 언재나 힘이 있기 때문에 몸이 더 빛나는 것 같다.	(서술)
64			147 : 4 ~6	하지만, 어른들도 우리들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떤 때에는 우리를 너무 르시는 것 같다.	(서술)
65			147 : 6 ~7	우리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인데도,	사실
66			147 : 1 0~148 : 1	그러나내 생각으로는 모범생과 개구쟁이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명사구) (보문)
67			148 : 1 ~4	모범생도 개구쟁이가 될 수 있으며, 개구쟁이도 모범생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다.	어린이
68			148 : 4 ~5	가출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서술)
69			149 : 1 ~2	세 소년의 보이지 않는 힘이 어느 세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서술)
70			17. 건강한 생활 (논설문)	154 : 9 ~12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발명을 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라고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운동 종목에서 신기록을 내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서술)
71		155 : 1 ~2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지녀야 할 것이 있다.	막연한 이름
72		155 : 6 ~8		몸이 건강할 때의 마음가짐이 앓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보다 훨씬 건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
73		155 : 1 0~156 : 1		같이 사는 이웃에게 다정스런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있을 것인가?	(서술)
74		156 : 1 0~11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서술)
75		156 : 1 6~18		자신의 손을 거쳐 변화되고 생산된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자신에 넘치고 희망에 부풀 것이다.	물체 (서술)
76		158 : 1 ~3		그 미움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아끼며 보살피 주는 마음밖에는 없다고 본다.	(명사구) (보문)
77		159 : 1 ~2		몸에 병이 나는 것은 곧 고칠 수가 있다.	(명사구) (보문)
78		159 : 2 ~3		그러나 마음의 건강이 깨어지는 것은 회복이 그리 쉽지 않다.	(명사구) (보문)
79		159 : 6 ~7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서술)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1	6	1. 삼일정신 (논설문)	6: 15 ~16	여기서 용기를 얻은 우리 민족은,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강조)
2			7: 1 ~3	도시에서나 지방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 독립을 외치며 일어났던 것이다.	(강조)
3			7: 10 ~12	우리가 삼일 정신의 첫째 의미로 민족 정신을 꼽는 것은 삼일 운동이 다른 민족의 침략과 억압에 항거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유
4			7: 14 ~17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뭉쳐 만세 운동에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민족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
5			8: 1 ~3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인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본성이며, 이 같은 본성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본성
6			8: 5 ~7	우리는 일본의 폭력과 강권 아래, 잃었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강조)
7			8: 8 ~10	~우리의 말과 글, 심지어는 모여서 의논하는 자유마저 빼앗아 갔던 것이다.	(강조)
8			8: 10 ~9: 3	우리 민족이 원래 강권과 폭력을 싫어하는 자유 정신을 가진 것은, 민주주의를 오래 전부터 갈망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사실을 통해서도~	(명사구) (보문)
9			9: 8 ~10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무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고, 태극기만을 들고 항거했다.	(명사구) (보문)
10			9: 11 ~13	~우리의 선조들은 맨주먹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쓰러져 갔던 것이다.	(강조)
11		1. 삼일정신	9: 18 ~10: 1	~우리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침략한 싸움이 아니라, 쳐들어온 외적을 막아 내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강조)
12			10: 3 ~5	~이 평화 정신이 민족 정신, 자유 정신과 함께 우리의 핏줄 속에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 것이다.	(강조)
13			10: 9 ~11: 5	8·15 광복을 맞이한 것, ~정부를 당당히 세운 것, 또 6·25때 공산군을 무찌른 것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치러 낸 것도 모두 삼일정신이 밑바침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구) (보문)
14			11: 8 ~12	민족 정신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자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정신, 내용, 뜻
15			13: 4 ~6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삼일정신을 이어받는 우리의 사명이다.	일
16			13: 6 ~9	해마다 우리가 삼일절을 기리는 것도, 삼일운동의 뜻을 새롭게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유
17		2. 우리의 고전 (고대소설)	16: 4 ~5	귀한 것은 사람이요, 흔한 것은 짐승이라.	(명사구) (보문)
18			21: 8 ~9	"~그 콩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술)
19			21: 12 ~13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서술)
20			23: 18 ~19	"~자, 여자는 자로 밖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요."	(명사구) (보문)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21	6	3. 기상대를 찾아서	28 : 2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이 날씨다.	(명사구) (보문)
22		(견학기록문)	28 : 2 ~4	'변덕쟁이 날씨'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유 (서술)
23			28 : 4 ~6	~날씨를 미리 알아 내어 예보해 주는 것을 들으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소식
24			28 : 7 ~8	"그렇게 궁금하고 신기하거든 기상대에 가 보렴. 좋은 공부가 될 게다." (것이)	(서술)
25			29 : 1 ~2	"1층 예보 관리과로 가 보렴. 친절하게 견학시켜 주실 게다." (것이)	(서술)
26			30 : 6 ~8	"~이제 기상 정보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었거든."	기상 정보
27			30 : 16 ~18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구름사진이 모두 이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지."	사진
28			31 : 3 ~5	방 안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큰 기계들과 텔레비전의 화면 같은 것이 벽면에 가득차 있었다.	(명사구) (보문)
29			33 : 14	국내에서 오는 것은 물론, 국외에서 오는 각종 기상 정보를 종합하여 예보 부서로 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하셨다.	기상정보
30			34 : 6 ~8	"~그것을 예보관 아저씨들이 분석하고 토의해서 예보를 발표하게 되는 거란다."	(서술)
31			35 : 2 ~4	~일기 예보는 모두 이 방에서 나온 예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명사구) (보문)
32		4. 조식 (전기문)	39 : 15 ~16	절대 왕권 시대에 이런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일
33			4 : 15 ~16	그런데 놀람계도, 가르친 대목을 금방외는 것이었다.	(강조)
34			40 : 18 ~41 : 1	조식은 원 것을 그 때까지 고스란히 잊지 않고 있었다.	내용
35			41 : 4 ~6	크게 된다는 것은, 부귀와 영화가 따르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 뜻이었다.	(명사구) (보문)
36			42 : 2 ~4	진사과에 1등으로 뽑히고도 벼슬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린 것은 그러한 충격 때문이었다.	이유
37			43 : 6 ~8	임금의 거둬지는 부름을 거절하는 것도 불충이라 생각한 조조식은 마지못해 한양으로 올라갔다.	일도
38			43 : 14 ~15	"~백성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펴는 것이 곧 어진 정치입니다."	정치
39			45 : 6 ~7	"나라 안이 텅 비고 말았으니,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강조)
40		5. 한식날 (설명문)	48 : 4 ~6	한식날만은 '동지로 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 달력의 날짜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명사구) (보문)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41	6	5. 한식날	48 : 11 '12	'한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찬 음식'이나, '음식을 차게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
42			48 : 12 '15	한식날에는 불을 피우자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생각된다.	(명사구) (보문)
43			50 : 12 ~14	이 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것이 전설의 줄거리다.	이야기
44			50 : 15 ~18	~한식날의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랜 옛날부터 전래된 우리의 국가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는 학자가 더 많다.	(명사구) (보문)
45			51 : ' ~2	한식이 바로 그 기간에 들어 있는 것이다.	(서술)
46			53 : 2 ~4	불이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서술)
47			53 : 10 ~54 : 1	한식날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풍습은 멀리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풍습
48			55 : 1 ~3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다. 조상 숭배의 마음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그 첫째요, 우리 민족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둘째이다.	(명사구) (보문)
49			55 : 8 ~10	미리 불에 대한 경각심까지 깨우쳤던 것이 그 셋째이다.	(명사구) (보문)
50			6. 노래하는 마음(풍시)	60 : 9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무도 모르는 어느 큰 분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51		61 : 8		그렇게 만들어서 세운 것은 아닐까?	(명사구) (보문)
52		7. 어린왕자 (동화형식의 소설)	66 : 9 ~11	걱정하던 왕자는 고리 모양과 같은 것이 번쩍이며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체, 모양
53			68 : 16 ~18	그러나 칼날을 세운 듯한 날카로운 바위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사물
54			71 : 10	"그래, 친해지는 거지." (것이)	(서술)
55			71 : 16 ~19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뿐인 사람이 되고, 나는 너에게 있어 둘도 없는 친구다 될 거야	(서술)
56			72 : 2	"겨우 알 것 같은 걸."	(서술)
57			73 : 4	"한 번 더 장미꽃을 보는 게 어때? (것이)	(서술)
58			74 : 9	"무엇을 가르쳐 줄 거니?" (것이)	예정
59			74 : 10	"뭐, 별것 아니야~"	일
60			74 : 11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물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61	6	7. 어린왕자	74 : 13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물	
62			74 : 16 ~18	"~네가 길들인 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말야."	사실	
63		8. 숲속의 노래 (방송대본)	78 : 9 ~12	~귀엽고 예쁜 새들이 살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으며, 한편으로 그토록 아름다운 새들을 모르고 지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일)	
64			80 : 14 ~16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색종이를 접어 날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술)	
65			82 : 5 ~7	노랑턱멧새가 보호색으로 몸을 감춘 것을 누군가가 찾아, 숨은 그림 찾은 듯이~	(명사구) (보문)	
66		9. 백제문화의 향기 (기행문)	89 : 3 ~5	금관의 앞뒤에 꽃았던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우아하고 섬세하였다.	금관장식	
67			89 : 7 ~9	~조각된 가닥은 마치 풀잎처럼 가늘프고 부드러워서, 실바람만 불어도 하늘거릴 것 같았다.	(서술)	
68			90 : 4 ~5	토지의 신에게서 농의 터를 산 땅 문서와 같은 것이지.	(서술)	
69			91 : 3 ~4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은 대부분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서술)	
70			91 : 9 ~10	머리가 없거나 팔이 떨어진 것들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	(명사구) (보문)	
71			93 : 3 ~4	허리를 굽혀 능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방안에 들어온 것같이 아늑하였다.	(서술)	
72			93 : 16 ~18	벽돌 한 장 한 장이 마치 고운 비단에 예쁘게 수를 놓은 것 같은 그 정교한 솜씨에 감탄하였다.	(서술)	
73			94 : 1 ~3	연꽃 무늬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은, 역시 그 당시 널리 숭상하였던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유	
74			10. 학급신문 (설명문)	100 : 6 ~8	~신문 재작에 참여한 지 꼭 한달이 되는 때 발행하는 것이어서, 좀 더 발전적인~	신문
75				102 : 1 9~103 : 2	태어나신 날짜를 기념하여 이름을 '오일오'라고 지으셨다는 것이다.	강조
76		11. 5월의 선물 (소설)	110 : 1 3~14	"영만이 오빠!" 하고 부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술)	
77			111 : 5	"아니, 금방 나왔는 걸." (것을)	일	
78			111 : 9 ~11	영만이는 미란이의 자전거 앞에 매달려 있는, 철자로 엮은 바구니 속에 가득 담긴 것들을 보며 물었다.	사물	
79			112 : 4 ~5	"숨씨도 시원찮은데 이런 무거운 것까지 달려 있어서..."	(명사구) (보문)	
80			112 : 1 2~13	"물론이지! 자전거 짐판에 묶여 있는 게 안 보여?" (것이)	물체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81	6	13. 빛나는 조상의 얼	112 : 1 7~18	"덕분에 품삯기로 먹는 거지 뭐.. 자, 출발이다!"	(서술)
82			114 : 4 ~5	영만이는 미란이의 말에 조금도 거짓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83			114 : 7 ~8	~한 번도 울이 어떻다는 자랑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명사구) (보문)
84			114 : 8 ~10	그러던 미란이가 이제는 아주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강조)
85			114 : 1 0~13	다 망했다던 미란이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 헤어져 살던 친구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강조)
86			115 : 1 6	"어머니께서 정성껏 사 주신 거야."	(서술)
87			117 : 9 ~11	그런 미란이가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니, 영만이의 낯날이 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
88			119 : 5 ~7	"~내 마음이 이 클로버잎에 담겨 언제까지나 오빠 옆에 있을 거야."	(서술)
89			12. 우리의 옛시조(시조)	125 : 1 1~13	바소 같은 말거머리와 귀영자같은 장구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거리 시시덕거리며 좋아하더라.
90		13. 빛나는 조상의 얼 (논설문)	128 : 3 ~6	그 나라 혹은 그 민족이 우수한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로 위에서 말한 세가지를 들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서술)
91			128 : 1 0~12	우리가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모두가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하고 가꾸며 지켜온 것들이다.	(강조)
92			129 : 8 ~10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문화를 창조한 조상의 얼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강조)
93			130 : 4 ~6	자기가 있는 것은 낳아 주신 부모님, 부모님을 낳아 주신 조상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유
94			133 : 7 ~9	이미 자주 국방, 자립 경제라는 구호는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서술)
95			134 : 2 ~4	서구 사상 가운데 경박한 면과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술)
96			134 : 6 ~8	~예술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세계인을 놀라게 할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 아닌가?	(명사구) (보문)
97			135 : 3 ~5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한 이웃이 된 시대에 네 것 내 것을 가리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사물
98			135 : 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서술)
99			135 : 6 ~8	그것은 마치 거문고나 가야금으로 바이올린의 소리르 내자는 것과 다름없는 주자이기 때문이다.	(명사구) (보문)
100		135 : 1 1~12	오히려 우리의 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꽃피워야 한다.	모든, 예술, 문화 활동	

최 규 일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101	6	14. 슈바이처 (전 기 문)	139 : 3 ~5	"그게 사실이라면, 하느님이 내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 저금을 내 주시기로 한 모양이구나~"	(지시)
102			140 : 1 9~141 : 1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심이었던 것이다.	(강조)
103			141 : 2 ~3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이면 서 대학 교수의 직위에 있었다.	이유
104			142 : 1 2~14	짐을 대충 풀기가 무섭게,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 곳 생활이 시작되었다.	일
105		15. 난중일기 (일 기)	149 : 6 ~8	~배를 타고 소포령 이르러 쇠사슬을 가로질러 매는 것 을 감독하며, 종일 기둥 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일
106			149 : 8 ~9	그리고 거북선에서 대포를 쏘는 것도 시험하였다.	일
107		16. 농사에 쓰이는 말	156 : 1 2~14	다음은 윤식이가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댁을 방문하였을 때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서술)
108		(조사기록문)	156 : 1 5~16	지금부터 농사에 쓰이는 말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발표 하겠습니다.	내용
109			157 : 3 ~4	이 내용은 농촌에 계시는 아버지 댁에서 조사한 것입니 다.	내용
110			157 : 6 ~7	처음 간 곳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풍경
111			159 : 1 8~160 : 2	곡식과 채소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보지 못한 것들의 이름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곡식과 채소
112			161 : 9 ~10	이 중에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플
113			161 : 1 7	농사일에 관한 말에는 끝말이 '이', '기', '질'로 된 것이 많았습니다.	말
114			162 : 1 8~19	그러나 도시의 간판이나 상품의 이름에 비하여 고유한 우리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술)
115			163 : 6 ~7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조사한 것이라 부족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116		17. 달혀진 문(극본)	166 : 1 0	"그런 것 같군요."	(서술)
117			166 : 1 1~12	"정말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 갈 수 있을 까요?"	물건
118			166 : 1 4~15	"동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	물건
119			166 : 1 5~16	"누구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물건
121			167 : 8 ~9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에 어느 바보가 제 것 을 이유 없이 다 주겠소?"	물체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연 번	학 년	단 원	면 수	(것)이 쓰인 문장 <용례>	의미 기능
122	6	17. 달혀진 문(극본)	167 : 1 1~12	"나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123			167 : 1 4~15	"맞아, 이걸 어떤 제략이 있는 거야."	(서술)
124			167 : 1 9~168 : 1	"~한시바삐 돈벌이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낫지."	(명사구) (보문)
125			169 : 3	"내 힘이 필요할 것 같아 왔지요."	(서술)
126			169 : 6 ~7	"~과학은 가장 확실한 것이지요."	(서술)
127			169 : 9 ~10	"동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	사물, 물체
128			169 : 1 0~11	"~누구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사물, 물체
129			172 : 5 ~7	"~그것을 쓰자 갑자기, 흐렸던 재 눈이 아주 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명사구) (보문)
130			172 : 9 ~10	"~뒤산 술가지를 흔들던 그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술)
131			172 : 1 1~13	"~수수깡 안경을 쓰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고향이 보일 거라고요."	(서술)
132			172 : 1 8	"네가 꿈을 꾸 게지." (것)	(서술)
133			173 : 6 ~7	"동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	사물, 물체
134			173 : 7 ~8	"누구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사물, 물체
135			173 : 9	"온갖 것이 있다고?~"	사물, 물체
136			174 : 9 ~10	"그 문을 열고 가지고 싶은 게 고작 수수깡 안경이란 말 이냐?"	사물, 물체
137			174 : 1 5~16	"아, 알았다. 밖에 손잡이가 없는 걸 보니 밖에선 열 수 없는 문인가 보구나~"	모양
138			175 : 6 ~7	"~아이가 연 문이니 아이밖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 요."	생각
139		175 : 8 ~9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만 믿은 게 틀렸군요." (것)	생각	
140		175 : 9 ~10	"~열어 달라는 말 한 마디로 열리는 것을 모르고."	사실	
141		175 : 1 3	"그래서 믿은 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서술)	

Zusammenfassung

Die Bedeutung (Funktion) und der Gebrauch des Wortes {Kött} (것) im Koreanischen

Kyu-IL Chŏe

Ich habe versucht die Bedeutung (Funktion) und den Gebrauch des Wortes Kött(것) zu klären das von den Koreanern im Alltag häufig gebraucht wird. Kött(것) wird im Verse in der Literatur also im Gedicht, Kinder-Gedicht, Märchen usw nicht gebraucht, dagegen in der Prosa. Z. B. in expositorischen Texten.

Nach der häufigkeit des Vorkommens, ist das Wort Kött(것) ein Grundwort der Koreanischen Sprache.

Die bisherige Diskussion über den Gebrauch des Wortes Kött(것) und die Ursachen fusse ich wie folgt zusammen :

1. Kött(것) hat verschiedene Bedeutungen und Funktionen in Kontext/Äusserung. Besonders hat das Wort bestimmte Funktionen strengem Befehl, Emphasis und um Bestätigung auszudrücken und um auf bequeme Weise durch eine Nominal Phräse Sätze miteinander zu verbinden.

2. Die Bedeutung des Wortes Kött(것) ist die ursprüngliche, wenn es im Kontext vor oder nach einer Wortgruppe steht. Wenn es vorausstehend oder nachfolgend mit einem anderen Wort ein Kompositum bildet. Und weil Kött(것) praktisch vielfältig gebraucht wird. Das Wort hat so viele Bedeutungen bekommen, Weil es in so vielfältig Weise gebraucht wird.

Daher hat Kött(것) im Satzzusammenhang so viele Polysemie. Kurzgesagt : Wegen seiner vielfältigkeit und Polysemie ist der Gebrauch von Kött(것) allzu beliebt geworden.